

육상 이돈재, 국가대표 선발

제16회 아시아경기 선수권대회 출전



포천시청 이돈재(23)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지난 22일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남자 36명, 여자 27명 등 63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돈재 선수가 포함돼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 선수가 출전하게 될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재)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아시아 45개국 1천여명의 선수가 참가, 43개 종목에서 경합을 치른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배드민턴연합회 부녀부 창립

28일 창립식 및 첫 대회 개최

포천시배드민턴 연합회(회장 양호식)는 지난 28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부녀부 창립식 및 제1회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 부녀부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배드민턴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부녀부를 격려하고 동호인간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고 부녀부(회장 민병길)가 주관한 가운데 47개팀 94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부녀부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창립식은 양호식 회장의 창립유공자인 민병길 회장과 고인옥 총무에 대한 공로 수어, 대회장인 민병길 회장의 이상목 이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박운중 시장을 비롯한 내빈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민병길 회장은 대회사에서 "부녀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합회 및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호식 회장은 기념사에서 "부녀부 창립은 포천 배드민턴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배드민턴의 보급과 확산도 중요



포천시배드민턴 연합회는 지난 28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부녀부 창립식 및 제1회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 부녀부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부녀부는 민병길 회장, 이운송 고문, 이원옥·양영연·송애령 부회장, 고인옥 총무 및 소속 10개팀 간사 등 임원으로 구성됐고, 지난 6월 29일 이사회 결의와 7월 24일 임시총회의 만장일치 통과, 8월 11일 여성회원 23명 참석이 참석해 발기인 대회

임원을 선출했다. 한편 제1회 배드민턴 부녀부 대회에서는 ▶30대 A조 노훈심·고연희, B조 김연의·김형자, C조 김경혜·김성순 ▶40대 A조 이원옥·유진숙, B조 김수연·신수정, C조 송영임·이정화 ▶50대 이경자·이영자 ▶60대 오병순·전정자 선수가 각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22

종목별체육외장

포천시바둑협회

유왕현 회장

바둑 앞세워 포천의 브랜드 창출

포천시바둑협회는 1998년 포천한국기우회로 창립, 2002년 포천시민바둑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포천시바둑협회로 출범해 2003년 오성과 한음 바둑대회로 바둑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포천시바둑협회는 체육회 가맹단체로 협회 창립부터 포천바둑의 보급과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유왕현(44) 회장으로부터 바둑협회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유왕현 회장은 포천시 소흘읍에서 유왕오리 전문점인 오리랜드를 경영하고 있는 지역 사업가이다.

포천시바둑협회는 유왕현 회장을 중심으로 조영식, 유인화, 조정훈, 마성철 4명의 부회장과 황경홍, 김홍석, 김건호 등 3명의 고문 및 대회 시 구성되는 이사진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포천시바둑협회는 50여명의 회원이 공식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며 요석회, 공무원 바둑회, 여성 기우회, 농협, 대진대 등에 구성된 기우회 별로 평상시 활동하고 있다.

포천에 위치한 성인기원은 한국과 명인기원 등 모두 3곳이며, 바둑학원으로는 포천과 송우리의 정석바둑학원이 각각 위치해 있다.

바둑협회가 연중 개최하는 대회는 불철 협회장배 바둑대회와 가을 경기북부초등학교 대항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인 오성과 한음 대회가 있다.

특히 오성과 한음 대회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대한생명배 대회에 이어 전국규모로 치러지는 대회 중 두 번째로 권위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유왕현 회장은 "오성과 한음대회는 현재 4 회째 대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협회창립 이전부터 이어져 총7회째 치러지는 전국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라며 "이 대회를 통해 바둑엘리트들이 발굴돼 서울에서 유학 중"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바둑협회에서는 내년중 세계바둑대회를 포천에 유치할 계획으로 '세계바둑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

유 회장이 세계바둑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된 데는 낯다른 바둑에 대한 애정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바둑을 통해 포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단 한번 포천을 다녀가지만, 포천에 대한 좋은 인식은 평생을 가게 돼 잠정적인



유왕현 회장 포천시바둑협회

포천의 우호군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제에 따른 포천의 브랜드 창출에 있어 바둑이 앞장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도 바둑인구의 저변이 가장 많아 바둑의 브랜드화는 더욱 가능성이 접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개최된 오성과 한음 대회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적은 투자로 이윤의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바둑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세계바둑페스티벌은 올해 개최예정인 지난 3월 23일 대전대학교에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나 바둑협회 내 사정으로 내년으로 개최계획을 변경해 준비중이며, 전세계 100여개국의 바둑인들을 포천으로 초청해 바둑을 전수하고 바둑메카로서 포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회장은 바둑의 폭넓은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우선 협회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행정력,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할 상태에서의 자생력이 확보된다면 바둑의 보급과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바둑이 어린이의 정서 함양 및 두뇌개발에 효과가 있는 운동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만큼, 대국 공간을 사이바상으로 옮겨 대회를 치르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회장은 포천바둑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정석바둑학원의 윤신조 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바둑협회는 세계바둑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23일 발족,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회 연합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

포천시볼링연합회(회장 김형석)는 지난 28일 신북면 에덴볼링장에서 제2회 국민생활체육포천시연합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총 40개팀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박운중 포천시장, 홍성



포천시볼링연합회가 지난 28일 신북면 에덴볼링장에서 제2회 연합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진호, 양미숙 선수가 선수대표 선수를 하고 있다.

디우 B·C 우승

훈 포천시의회 의장 및 종목별 연합회장 등 내빈과 선수들이 참여한 개회식과 3명이 1개팀을 구성해 12게임의 특점순으로 승위를 결정하는 클럽대항전으로 치러졌다. 김형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가족단위의 스포츠가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볼링은 최고의 스포츠일 것"이라며 "최근 침체된 볼링의 열기를 동호인 모두의 힘으로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우승은 평균 205.75로 디우 B·C(이광선, 이희문, 장안)가 준우승은 평균 200.33의 에덴 B·C(임재선, 오동준, 신원근), 3위는 평균 197.33의 포미팅 B·C(김명석, 신동환, 홍재민)가 올랐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2005년 체육우수지도자 선정

포천시가 선정·지원하는 2005년도 체육우수지도자 15명이 확정돼 지원금이 지급된다.

포천시는 지난 24일 포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운중 포천시장을 회장으로 변진수 포천교육장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진흥협의회가 개최돼 우수지도자를 추천하고 선정대상자를 심의했다.

시가 매년 엘리트체육을 지도하는 종목별 코치를 선정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체육우수지도자는 지난 2월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포천시에 접수했으며, 지난 24일 최종심의를 이루어져 결정됐다.

이날 심의를 통해 선정된 2005년도 체육우수지도자는 차승룡·김경남·김영우(축구), 박창용·송경이(육상), 김희태·김영근·김경란(배드민턴), 김태선·이상우·신동호(태권도), 손성국·오동하(역도), 이정일(사이클), 김광명(바이애슬론)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도자에게는 1월부터 8월까지의 미지급분이 일시불로 지급되며, 올 12월까지 매달 3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한편 포천시체육진흥협의회는 포천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총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 체육진흥사업의 심의 및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일동축구회 40대 축구최강

포천시축구연합회(회장 이상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포천종합고등학교와 삼성중학교에서 개최한 제1회 포천시축구연합회장기 40대 축구대회에서 일동축구단이 우승했다.

포천축구의 부흥기에 축구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40대 축구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17개팀 8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한편 대회 우승은 위너스에 3대0으로 압승한 일동축구회(감독 채현석)가 차지했고, 공동3위는 가산, 소울 축구회, 최다득점상은 3골을 성공시킨 백인기(소울축구회), 최우수선수상은 일동축구회의 골문을 무실점으로 지킨 김영만 선수가 수상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안전한 전기사용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안전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특급 전기점검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전기점검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보장



대표이사 안병호

전기신규신청과 전기 신·증설 공사 및 각종 대관업무 상담은 당사로 문의하세요



◆변압기 부하 점검